

(주)모비젠, 벨류링크유와 '해운 물류 빅데이터 분석' 분야 협력

- ◆ '글로벌 해운물류 디지털 컨소시엄(GSDC)' 참여를 통한 해운 물류 빅데이터 분석 분야 진출
- ◆ 빅데이터 솔루션 '아이리스' 기반의 해운 물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의 기업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 (주)모비젠(대표 김태수, 고필주)은 국내 해운물류 플랫폼 기업인 벨류링크유(대표 남영수)의 주도로 출범한 '글로벌 해운물류 디지털 컨소시엄(GSDC, Global Shipping & Logistics Digitalization Consortium)'에 참여함으로써 해운 물류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 진출했다고 00일 밝혔다.

벨류링크유가 주도하여 설립된 GSDC는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공유·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해운, 물류, 제조유통, IT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총 36개사가 참여하여 지난 9월 출범한 컨소시엄이며, 그 후에도 컨소시엄의 취지에 동참하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GSDC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벨류링크유는 국제물류 분야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완벽한 해운 물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이 컨소시엄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컨소시엄의 운영과 관련한 기반 기술과 비용, 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GSDC 참가 회원사들은 공유와 협업이라는 취지하에 커머셜 트레이딩, 운영 시스템 사용,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거나 각 회원사들의 운영 데이터의 공유를 통하여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에 동참하고 있으며, 데이터 표준화는 물론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과 RPAI(Robotic Process Automation + AI)를 추진하며 IoT 및 블록체인의 국내 실용화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RPAI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면서 업무량이 많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로봇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로, 여기에 인공지능(AI)를 접목시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비젠은 GSDC의 회원사로서 벨류링크유와 협력해 회원사들이 해운 물류 빅데이터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해운 물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빅데이터 솔루션 '아이리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해운물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50여 종의 사용자 정의 보고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운선사, 포워딩 업체, 운송업체 등 연관 업체는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아이리스'의 사용자 정의 보고서 기능을 이용하여 개발자의 도움없이 단기간에 빅데이터 기반의 여러 유형의 보고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향후 GSDC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산업내 디지털화 과정을 통하여 더욱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를 취합함으로써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빅데이터 분석 리포트의 제공은 물론 RPAI 추진을 위한 정보 소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주)모비젠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생소했던 해운 물류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며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분야의 앞선 기술력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파트너와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 솔루션 '아이리스'의 사업 영역을 다각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별첨]-회사소개

(주)모비젠의 역사는 2000년 회사 설립 당시,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사의 대용량 과금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 고객의 체감 품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시작된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생소했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하루에 수 천만 건씩 생성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10 여건의 관련 특허를 포함하여 이를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주)모비젠은 누구나 개발자의 도움 없이 빅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탐지 및 예측 수요에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AI 분야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환경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OSS(Operation Support System, 운용 지원

시스템)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주)모비젠이 2008년에 한국 최초로 독자 개발하여 출시한 빅데이터 플랫폼인 '아이리스(IRIS)'는 일일 수천억 건씩 발생하는 빅데이터의 수집, 가공, 저장, 탐색, 분석 및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토탈 서비스를 성능 저하 없이 제공함으로써, 페타바이트(PB) 수준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고객들이 단시간내에 인사이트를 도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주)모비젠은 SK텔레콤, LGU+ 등 통신 사업자를 비롯하여 SK 브로드밴드, SK 하이닉스, 코레일, 삼성 화재, 금융보안원, 전력연구원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고객들의 비즈니스 개선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본인정보 활용(MyData) 사업 등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사업문의] 모비젠 사업총괄 이세연 부사장 010-4114-9360 sylee@mobigen.com

[PR] 지란지교시큐리티 전략기획부 박지선 대리 010-2766-0657 js_pr@jiran.com